

경제·문화·관광 ... 광주·전남의 번영 중국에서 찾는다

■ 광주시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광주시의 대 중국 교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중국 중요 도시와의 교류확대를 통해 수출증대는 물론 인적왕래를 늘려 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광주시는 광주(廣州)시를 시작으로 현재 5개 도시(우한·선양·대련·원저우·나양시)와 우호 협력을 체결하고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 엔타이시와 베이징시는 교류 MOU(양해각서) 체결도 있다.

◇중국 교류 비중 가장 커=광주시는 현재 세계 16개국 26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다. 이 중 중국이 7개 도시로 교류 비중이 27%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광주시가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도시들은 수도인 베이징을 비롯, 중국 남부와 중부에 넓게 퍼져있다. 광주시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 도시들은 모두가 중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경제·무역 도시들이다.

특히 중국 광밸리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광주가 광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 도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선양시는 중국 최대의 공업도시이며, 대련시는 중국 최대 소프트웨어 산업기지다.

올해 우호 협력도시 관계를 맺은 원저우시는 중국 경제 총량 4위의 도시이며, 나양시는 중국 허남성의 2대 공업도시 중 하나다. 교류 실적은 광주우시가 85회로 가장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도시들도 청소년 교류와 문화예술단 방문, 국제행사 참석, 박람회, 투자설명회, 무역사절



광주시는 중국의 다양한 도시와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을 꾀하고 있다.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열린 투자유치협약 체결 장면. <광주시 제공>

수출증대·인적왕래 확대로 경쟁력 높이기 수교 20주년 사진전·어학경진대회 등 준비

단 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지만, 문화적 동질성이 많고 산업 측면에서도 서로 보완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대 중국 교류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학생 규모 급증=지난해 광주시와 중국의 교역량은 13억9400만 달러에 이르렀고, 해마다 수많은 중국 관광객이 광주를 찾고 있다.

특히 2600명에 달하는 유학생이 광주에 머물고 있고, 광주 거주 전체 외국인 43.2%가 중국인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중국과 관련한 문화행사 및 유학생, 외국인 가정 자녀의 교육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광주와 중국 간의 문화 격차를 좁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주관 광주 중국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사진전·서예전·어학경진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가 주관한 광주 방문을 추진 중이다. /최원철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전남과 중국과의 공식적인 교류도 올해로 20년이 됐다. 전남지역 자치단체 가운데는 가장 먼저 목포시가 1992년 11월 장수성(江蘇省) 쉐먼강(連雲港)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후 전남도가 1993년 11월 저장성(浙江省)과 우호교류에 이어 자매결연을 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에 나서면서 현재는 전남에서만 15개 자치단체가 중국의 50개 성이나 시와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0년 사이 전남과 중국간 무역 규모는 7배 가까이 커져 지난해에만 135억 달러의 교역이 발생했다.

◇중국 내륙진출 노리다=전남도는 세계 4대 경제권인 'G4' 가운데 중국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자매결연 지역 4곳 가운데 2곳이 중국(저장성·장시성)이고 우호교류 지역 26곳 중 3분1에 가까운 8곳이 상하이·장쑤성·충칭 등 중국이다.

저장성, 장시성과는 청소년간 홈스테이와 공무원 교환 근무, 한중포럼, 농업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박준영 지사가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저장성 서기로 있던 2005년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향후 대중국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중국 동부 해안지역과의 관계에 치중해왔는데 앞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내륙지역으로 진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관광도 승부수=대 중국 무역 못지않게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중국



지난달 순천 낙안읍성을 방문한 중국 스포츠장(石家莊市) 관광객들이 가야금 병창을 관람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 15개 지자체, 중국 50곳과 교류 중국센터 개설 ... 내륙지역 진출 모색

인 관광객 유치다. 전남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깨끗하고 넓은 바다를 끼고 있고 한국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그만큼 매력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남을 찾는 중국 관광객 수도 2009년 3만873명이었다가 2011년 6만6606명으로 2년 사이 115.7% 증가했다. 전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28.3%로 전국 비중(22.6%)보다 높았다.

전남도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보다 적극적인 중국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대표적인 구상이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에 관한 연구를 맡고 있는 전남발전연구원내에 중국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전남도는 올해 안에 중국센터 개설을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인력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21세기는 중국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보다 정밀한 연구를 위해 센터 개설을 추진하게 됐다"며 "센터가 전남의 효과적인 중국 공략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어거야말로 '무법천지'

대륙에서 뛰는 '침병'들

광저우·상하이에 공무원 주재 교류 뒷받침

광주·전남의 대 중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침병'들이 대륙에서 뛰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와 상하이에 공무원을 주재시켜 원활한 대 중국 교류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1996년 광저우와 자매결연한 광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현지에 공무원을 파견해 교류업무 지원과 홍보에 전력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오는 2015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비해 중국권에 광주를 널리 알리는 등 대회 성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03년 상하이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해 대 중국 마케팅의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지인을 포함해 3명이 근무중인 상하이통상사무소는 여수 세계박람회 중국인 방문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전남도는 인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상하이통상사무소는 2009년 광둥성 기업으로부터 6000만 달러의 투자유치를 성사시키는 등 최근 3년간 1억2000만 달러의 투자유치와 2246만 달러의 수출, 1만8510명의 관광객 유치를 이끌어 냈다.

2013년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순천시도 소속 공무원을 상주시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4~5년 전 목포시, 여수시에서도 상하이통상



전라남도 상하이통상사무소 앞에서 포즈를 취한 선경일(오른쪽) 소장과 순천시 파견직원 최광수씨(오른쪽 두번째).

사무소에 공무원을 파견했으나 지금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자체가 상하이를 중심으로 홍보 및 교류강화를 통해 앞으로 대중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

고 있다. 한편, 상하이에 지역 출신 기업가 및 자영업자 200여명으로 구성된 광주·전남향우회(회장 장종섭·56·구례)가 결성돼 활동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중 수교 20년 일지

- ▲1992.8.24. 한국과 중국, 베이징에서 수교 서명
- ▲1992.9. 노태우 대통령 한국 국가원수로 첫 중국 방문
- ▲1995.11.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 방한
- ▲1998.11. 김대중 대통령 방중, '한·중 동반자관계' 선언
- ▲2001.6. = 한중 어업협정 발효
- ▲2004 말. = 중국,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 부상
- ▲2005.11. = 후진타오 주석 방한,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의지 재천명
- ▲2010.10. 한국 체류 중국인 수 60만명 돌파
- ▲2010 말. 한국, 대중국 수출액 1000억 달러 돌파

HANIL EXPRESS

www.hanilexpress.co.kr

육지에서 제주까지! 완도 ↔ 제주 최단시간 100분 도착!!

제주도 2박3일 초특가 특가! 한달만

제주 PKG 여행 일정표(8월27일~9월27일까지)

일자	교통편	시간	행사일정	식사	일자	교통편	시간	행사일정	식사
1일	선박	15:00 16:40	광주-완도 버스터미널 무료셔틀 완도항 출발 제주2부두 도착 숙소도착 및 자유시간 숙소:일반호텔	석식 (자체식)	3일	전용버스	17:50	호텔조식후 출발 제주기념품쇼핑센터 에코랜드 매직아일랜드(선택관광) 성읍민속마을 중식(토종흑돼지 불고기) 아트랜드 제주2부두 도착 및 출발(완도발) 완도 버스터미널-광주 무료셔틀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투어피 (1인기준)		5인실	4인실	3인실	2인실				
8/27~9/27까지		w129,000	w135,000	w139,000	w145,000				
비고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기사, 가이드 수고비 별도입니다. (1인w10,000)							
선택관광		서귀포유람선 w17,500	매직아일랜드 w18,000	마사주 w15,000					

송죽레저관광

064-744-9111 / 747-8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10길
23번지 2F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대회
(9월6일~9월15일)

